

## 프로이트 읽기: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2강

### 3. 전반적 성욕도착

#### 변이와 질병

의료인들이 성욕도착을 변태나 질환의 조짐으로 간주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성욕도착의 경우는 동성애보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의 대부분이 정상적 사람의 성생활에도 대체로 존재하며, 당사자들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정상인들도 누구나 정상적 성 목적에 더하여 성욕도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너무도 보편적이어서 **성욕도착에 비난의 뜻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성욕도착 가운데 몇 가지는 특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배설물을 핥거나 시체와 성교를 하는 것처럼 성 충동이 수치심, 혐오감 그리고 고통을 넘어설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정신병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증상으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한편 모든 면에서 정상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성생활이라는 범주에서는 병자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성욕도착에서 병적인 특징은 성 목적의 내용이라기보다 정상적 성 목적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이다. 성욕도착이 **배타성**과 **교착**이라는 특성을 지니면, 우리는 그것을 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두 가지 결론

- 1 성 충동에 저항하는 정신적 힘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수치심과 혐오감이다. 이러한 힘은 충동이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 2 성 충동 자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욕도착에서 다시 흩어진 구성 요소들로 결합되어 있을지 모른다.

### 4. 신경증 환자들의 성 충동

#### 정신분석이란

‘정신신경증psychoneuroses 환자’라고 알려진 사람들-히스테리, 강박신경증, 치매와 편집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성생활에 관해서 오도되지 않은 완벽한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분석이다.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프로이트가 치매와 편집증을 신경증의 범주에 넣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신경증 범주에는 불안 히스테리/공포 신경증, 전환 히스테리, 강박 신경증이 들어간다) 모든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신신경증 환자들은 성 충동의 힘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성 충동[성욕]이 신경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불변의 근원**이며, 문제가 된 사람의 성생활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이러한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신분석으로 히스테리 환자들에게서 증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그러한 **증상들이** 정서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러 정신 과정들이자 소망과 **욕망의 대체물**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증상 혹은 환상은 신경증자가 욕망을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이다) 그러한 증상들은 억압이 작용함으

로써 심리적 행위로 발산될 수 없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히스테리의 경우 신체적 현상으로, 즉 히스테리 증상들로 전환을 통해 표현된다. 특별한 기법을 통해 이러한 증상들을 체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서적 생각들로 만듦으로써, 무의식이었던 심리적 구조의 본질과 기원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증상은 말한다. 증상은 은유다)

히스테리 환자들의 특성은 정상치를 넘는 정도의 성적 억압, 성 충동에 대한 저항심리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지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혐오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 충동의 우세한 발달이라는 상반된 특성도 갖는다. 히스테리 소인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성적 상황의 요구가 닥치면 히스테리 증상이 발현되는데, 이는 질병이 그에게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다.

#### 신경증과 성욕도착

신경증은 도착의 음화negative다. (번역 문제) 쉽게 말하면 도착을 뒤집으면 신경증이다. 모든 신경증 환자들의 무의식적 정신생활은 성욕도착 충동과 동성의 사람들에 대한 리비도의 고착을 보인다.

#### 부분 충동(번역서에는 구성 본능)

부분 충동들은 대개 반대되는 것들과 한 쌍으로 나타난다. 가령 절시증/노출증 증상들에는 고통이 포함된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애정이 적대적 충동으로 바뀌는 것은 리비도와 잔인성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매개로 한다.

- 1) 모든 능동적 성욕고착은 수동적 짝을 수반한다. 노출증자들은 동시에 훑쳐보는 취미를 가진 성욕도착자다. 마찬가지로 사디스트들은 모두 마조히스트다.
- 2) 현저한 정신신경증의 모든 사례에서 충동 중 어느 한가지만이 발달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충동들과 그것들 모두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

### 5. 부분 충동과 성감대

충동은 몸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자극의 근원이 심리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단일한 자극에 의해 정해지는 흥분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충동의 개념은 정신과 육체 사이의 경계에 놓여있다**. 충동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신체적 근원과 목적에 대한 관계 때문이다. 충동의 근원은 어떤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흥분 과정이며, 충동의 목적은 그 기관의 자극[불쾌감]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극 제거의 이상은 무생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죽음 충동)

성감대가 수행하는 역할은 입과 항문에 성적인 중요성을 두는 성욕도착의 경우 분명하다. 이 경우 **입과 항문은 생식기의 일부로 기능한다**. 생식기를 대체하는 성감대의 중요성은 히스테리에서 가장 극명하다. 반면 강박신경증의 경우는 증상의 형성이 주로 정신 기관 영역에서 일어난다. 특히 강박신경증의 경우에는 새로운 성 목적을 만들어 내는 충동들이 성감대와 무관하게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성 충동의 구성 요소가 고통과 잔인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역할이 피부에 맡겨진다. (어린이를 체벌할 때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금지된 이유?)

6. 정신신경증에서 성욕도착이 명백히 우세한 이유

## 7. 성욕의 유아기적 특성

성도착이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성도착에 선천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요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모든 성도착의 배아를 포함하는 이 기질은 아동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신경증 환자들의 성욕은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유아기로 돌아간다. (퇴행과 고착)

## 유아기의 성욕

성충동에 관한 일반적 견해: 성 충동은 유아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사춘기에야 일깨워진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성생활의 근본적 조건에 대해 무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단 한 사람의 학자도 유아기에 성충동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

### 유아기의 기억상실

우리는 대부분 6-8세 이전의 시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분명히 그 시기에 우리는 느끼는 대로 반응했고, 강렬한 감동을 받았던 열정적 느낌들을 보였고,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여길 만한 말들도 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서 듣는다. (꼬마 한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절만큼 느낌을 잘 받아들이고 재현할 능력이 있었던 시기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가 망각한 바로 그 느낌들이 우리의 정신에 가장 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해야 한다.

유아기의 기억상실은 달리 말하면 억압인데, 이는 유아가 이미 성욕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유년시절의 기억상실이 없다면 히스테리성 기억상실도 없을 것이다.

### 1. 잠복기와 중단

신생아에게 성 충동의 배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당분간 계속 발달하지만 점차적 억제에 의해 감소되고, 그 다음에는 성 발달의 진전에 의해 저절로 중단되거나 저지된다.

성적 금제들: 나중에 성 충동을 가로막고 방해하게 될 정신적 힘들이 형성되는 때는 바로 잠복기다. 이는 교육의 산물이지만, 이 정신적 힘의 발달은 교육의 도움 없이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 힘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째서인가? 아마 유아기 성 충동을 억압해서일 것이다. 문화의 성취에는 언제나 성 충동의 힘에 의해 얻어진 강력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 이러한 충동은 그 자체로서 성도착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불쾌감[자극]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동으로부터 그 활동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정신적 힘을 불러일으킨다. (반응 충동)

성적인 현상들 덕분에 우리가 성 충동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 2. 유아기 성욕의 표현

엄지손가락 빨기: 아동기 성표현의 예

빠는 행위의 목적은 원래 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빨기는 완전한 주의집중이 필요하며 잠이 오게 하거나 심지어 오르가슴 성질을 지닌 운동 반응으로까지 나아간다.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는 성적 만족의 결여) 많은 아이들이 빨기에서 수음으로 진행한다.

## 자위

생식기의 조작을 통해 쾌락을 얻는 행위. (안현필) 프로이트가 유아 성욕을 밝히기 전에 자위는 사회·의학적 문제라기보다 종교·도덕 관점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Samuel Auguste David Tissot의 『오나니즘: 자위에 의해 발생된 질병에 대한 논문』(1778) 때문인데 이 텍스트가 무려 100년 넘게 그 문제에 대한 표준적 참고서였다. 『세 편의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그것을 유아의 성 활동, 즉 성감대가 생식기 부위인 자가-성애의 실천으로 정의했다. 정신분석 이론 안에서 프로이트는 자위에 중요한 지위를 부여했다. 자위는 유아 성욕 전체에서 중요한 대리인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은 그것에 달라붙는 죄책감을 떠맡을 수 있다. 아이의 자위에 대한 보육자의 반응이 그 아이의 인성을 구조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프로이트는 자위의 유아적 측면을 고집했고, 이 주제가 1910년 비엔나 정신분석협회의 창립자들 회의에서 아주 논쟁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부터 성인에게 자위는 퇴행적이고, 정신 병리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잘못 가정되었다. 성인의 자위는 성욕의 정상적 표현이라고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유아의 자가-성애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 2. 자가-성애

충동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이가 엄지손가락 빨기에 열중할 때, 그는 이미 만족했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 만족감은 무엇보다 먼저 양분을 섭취하려는 욕구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 즉 성적인 행동은 우선 자기보존 기능에 속하며, 나중에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의존anaclisis) 성적 만족을 반복할 필요는 이제 양분섭취 필요와 분리된다. 이제 아이는 다른 사람의 몸보다 자신의 몸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독립. 분리는 주체의 생산이다) 쾌감이 떨어지는 것은 나중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억압이 뒤따르면 거식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식사 장애로 고통 받는 여성 환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 심각할 정도로 빠는 행위에 탐닉한 경험이 있다.

정리하자면 빠는 행위는 원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 성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가성애적이다. 그 성 목적은 성감대에 의해 좌우된다.

## 3. 유아기 성욕의 성 목적

### 성감대의 특성

피부나 점막의 일부도 성감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히스테리 증상에서도 전치 경향이 발견된다. 히스테리에서 억압은 무엇보다 실제의 성기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부위가 자극에 대한 감수성을 다른 성감대로 옮기며, 다음에는 그 부위가 정확히 성기처럼 기능한다. (Dora의 사례) 사실상 성욕을 일으키는 특성을 신체 모든 부분과 내부 기관들로 돌릴 수 있다.

### 유아기의 성 목적

만족감을 반복할 필요가 있는 상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불쾌한 특성을 지니는 특별한 긴장감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부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 성감대 주변으로 투사된 근질거리는 느낌이나 자극에 의해서다. 성감대에서 투사된 자극적 느낌을 외부적 자극으로 대치하는 것. (성 목적의 또 다른 공식)

#### 4. 수음의 성적 징후들

##### 항문 부위 활동

입술과 마찬가지로 항문은 맨 처음부터 성욕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항문 부위는 평생 성기 부분의 자극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한다. 유아기에 장 질환이 흔한 이유는 그 부위에 강한 자극을 가하기 때문이다. 근대 의학이 신경증을 설명하는데 치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육의 수축 이완이 고통과 함께 쾌감을 유발한다. 배변의 쾌감. 혹시 비데가 요즘 필수인 이유는 청결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교육자들이 배변을 억제하는 아동들을 못했다고 하면, 이는 타당한 것이다.

장의 내용물은 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것 외에도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아동 자신의 몸의 일부로 취급되며 선물[소중한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나중에 선물에서 아기의 의미를 얻는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기가 먹는 일에 의해 생겨나고 장을 통해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장의 내용물은 타자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유냐 배출이냐)

##### 성기 부위 활동

성 충동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장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부위는 성기다. 남아의 경우 귀두가 점막 주머니로 덮여 있어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분비물에 의한 자극을 일찍이 받는다. 또한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받는 마찰도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청결과 불결 모두가 같은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 아동들의 성 행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해질 행동의 기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치고 지나가는 유년기 자위로 확립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위에서 남아들이 보이는 손에 대한 선호는 이미 지배 충동이 남성적 성행위를 하도록 정해졌다는 증거다.

아이들의 성 생활을 자극하는 데 유혹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내적 원인들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유혹의 영향을 받으면 아이들은 모든 종류의 성적 일탈로 빠져들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경향이 그들의 정신적 소인에 선천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성적 부절제에 대한 정신적 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숙된 여자와 같이 행동한다. 교활한 유혹자에게 이끌린다면 그녀는 자기 취향에 맞는 온갖 종류의 성도착을 찾아낼 것이고, 매춘부처럼 행동할 것이다.